

다
시
시
작
하
고
싶
다

Concert Opera

박하사탕

1980년 5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날의 기억

작곡 이진용 | 대본 조광화 | 원작 박하사탕(이창동 감독, 2000)

2019. 12. 13(금)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예술감독·연출 정갑균 지휘 정주현 피아노 김한나 이지는 영상디자인 이이남 출연 윤명길 양준모 윤정남 장유리 임지현 이하서 최공석 박성훈 정수희 방신제 임선아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gjart.gwangju.go.kr 티켓 전석 10,000원 관람 8세이상 관람가 공연문의 062)412-2507

Concert Opera

박하사탕

1980년 5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날의 기억



예술감독·연출
정갑균



작곡
이건용



대본
조광화



지휘
정주현

CAST



김영호 역
Tenor 윤병길



강의원 역
Baritone 양준모



윤순임 역
Soprano 윤정난



박명숙 역
Soprano 장유리



양홍자 역
Mezzo Soprano 임지현



박병장 역
Baritone 이하석



신광남 역
Bass 최경석



통기타 역
Baritone 박성훈



임미애 역
Soprano 정수희



한지박 역
Mezzo Soprano 방신제



화순덕 역
Mezzo Soprano 임선아

SYNOPSIS

1999년 봄, 영호(주인공)는 '가리봉 봉우회' 야유회에 느닷없이 나타난다. 그곳은 20년 전 첫사랑의 여인 순임과 함께 소풍을 왔던 곳.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후다. 직업도 가족도 모두 잃고, 삶의 막장에 다다른 영호는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한다. 영호의 절규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차의 기적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0년 5월 '그날'로 관객을 이끄는 오페라 <박하사탕>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영화 '박하사탕'을 오페라로 재탄생시켰다. 2000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조광화가 대본을 집필하였으며 이건용이 작곡을 맡았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그날의 사건과 피해를 당한 광주시민이 아닌, 당시 그곳에 있던 한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투영한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탄탄한 줄거리와 아름다운 음악,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사를 통해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을 노래한다.